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국가도시장도답이아니다

사회복지에관한아나키스트적관점

스티브밀렛

스티브밀렛
국가도시장도답이아니다
사회복지에관한아나키스트적관점
1997

From Chapter 3 of Twenty-First Century Anarchism:
Unorthodox Ideas for a New Millennium (edited by Jon
Purkis and James Bowen)

kr.theanarchistlibrary.org

1997

차례

개론	3
인용	3
서문	3
역사와기원	4
복지국가의근간	4
현대복지국가의발전	5
전후복지국가	6
복지국가의효과	7
복지와아나키	10
국가에대한반대 - 우파? 좌파?	10
국가를고발한다.	11
사회복지와아나키스트적대안	13
여기에서저기까지	14
결론	15

개론

1 장에서 나는 영국에서 복지국가 개념의 발전을 요약하고, 그 발전도 상에 사회적 통제가 중요한 동인이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국가가 복지에 개입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지를 실증할 것이다. 나는 복지 권력 기구로만 취급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국가로부터 분리된 참여적 대안의 당위성뿐 아니라, 이러한 대안이 국가가 없는 사회의 창조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인용

국가가 사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는 것은, 견줄 수 없고 편협한 개인주의를 필연적으로 옹호한다. 시민들 중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페트르 크로포트킨, < 상호부조 >

영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무자비한 정치 권력 관료제가 인간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하고, 보호한다. 그리고 인간의 연대적 협동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두고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다.

루돌프 로커, <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이론과 실천 >

서문

20 세기는 국가 개입주의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시대는 감시와 규제를 통해 인민 생활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주는 시대다. 이 침범의 상당 부분은, 인민들이 다른 대안은 더 끔찍할 거라 믿었기에 정당화된다. 인민들은 국가가 많은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국가 주도 복지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국가의 상은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합의에 의한 성취로 떠받들어졌다. 복지 국가의 다양한 기둥들이 세워졌을 때, 그 동인은 뚜렷한 하나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진보적' 성격이라는 것, 즉 사회적 응집력을 신장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끔찍한 불평등을 상쇄한다는 것은 타우니, 티트머스, 크로스랜드의 레토릭의 일부였다. 이들은 국가를 사회정의 신장의 수단으로 보았고, 복지 국가가 영국을 사회주의 도상에 올려둔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좌파의 더 급진적인 관점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기에, 복지 국가는 언제나 유의미한 지지를 받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서

비스에대한공적지출은복지에있어서일정부분평등을건설했다고믿는다. 복지국가에대한의구심은주로우파로부터제기되었다. 이들은공적지출을줄이고부자들이자기돈을마음대로쓸수있는능력을증대시키고자했다. 하지만, 더자세히들여다보면, 복지국가는처음에바라보았던것보다평등, 권한, 사회정의의덜제공한다. 국가주도복지는권력을가진자의성공적인사회통제수단으로써, 평등과정의의실현에는거의기여하지않는다.

역사와기원

복지국가의근간

오늘날의복지국가는 300 년전 (15 세기말 ~16 세기) 에민족국가의발흥과확립이후사회통제를목적으로이루어진입법에근간하고있다. 중세상호부조적공동체의붕괴와급격한인구증가는 16-17 세기에갓등장한정부들에게새롭고두려운문제가되었다. 거지와부랑자들의수가늘어나면서, 사회적불안에대한우려가도덕적의무감과결합하여방임주의를진압했다. 일반적으로 2 차대전전의집단경험에서발흥했다여겨지는복지국가에대한논의를 300 년전에서부터시작하는것이이상해보일지도모른다. 하지만영국에는복지에대한국가개입의긴역사가있다. 그시작은 1572 년의구빈법에서시작한다하겠다. 튜더왕조시기부터시작된영국의국가복지정책에대한작가는'1700 년영국을복지국가라부르는것은전혀시대적오기가아닐것이다.'라결론지은바있다.

초기구빈법의입법은지역교구들이빈자를구원하기위해수입을늘릴권리를주었다. 그와동시에구걸을금지하고, 부랑에대한처벌을명문화했다. 이에더하여구빈원의건립이시작되었다. 1610 년, 구빈원의설립이'도적과무법자와게으른거지들과다른게으르고무질서한자들을수감하고, 교정하며, 일하도록만들기위'한목적으로의무화된이후그수는더늘어났다. 16 세기후반, 의회는지도층의행동에대해관대한입장을취하기시작했다. 이를테면의회는대금업을합법화하고, '하위질서'의예의와사회적행동을규율하는법령들을통과시켰다. 입법자들이도덕과공공질서에목적을두고있었다는것은명확해졌다. '이모든것은구빈법이경제적조정자가아니라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조정자로설계되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이때비로소자신의잘못이없어도일자리를찾지못하는당당한, 혹은노동하는빈민과나태하거나위험한빈민사이의차이가생겨났다. 후자에대한집착은간간히부랑자들이안정과질서를해할것이라는위협에대한신경질적두려움으로드러났다. 이두려움은부랑자들이실제로

더욱분명해진다. 이의존과비의존의신화어딘가에서인간에게꼭필요한 것, 즉돌봄과협동을위한우리의역량은실종된다. 사회복지제공하는 것에관한국가의실패는사회복지라는개념그자체를약화시키는것이아니라, 국가의역할을부인하는데사용되어야한다. 복지는권력의분배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그리고그렇기에국가주도복지는언제나최소한의성과를낼수밖에없다. 동시에우리는시장이라는이름으로국가주도복지를삭감하는것에대한환상에빠져서는안된다. 대안이없는시장은가라앉거나헤엄치거나의양자택일일뿐이다. 그리고가라앉는것은빈곤, 궁핍, 심지어죽음을의미한다. 국가로부터복지를해방하는시도를우파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말길수는없다. 복지국가에대한민주적이고참여적인대안의필요성이지금보다더시급한적은없었다.

가져오는반란의위협보다는, 사회적낙인과부랑자들의경범죄에서비롯되었다. 사회적분할은‘납세자’와‘수혜자’라는범주를낳은지역예산으로인해더격화되었다. 이두집단사이의경계선은유동적이어서, 경제상황에따라언제라도‘납세자’들이쉽게‘수혜자’가되는상황이었는데도말이다.

현대복지국가의발전

튜더와스튜어트왕조의구빈법은소규모농촌공동체에는알맞았다. 그리고산업혁명의발흥과농촌공동체의전통적구조를파괴한도시프롤레타리아트의등장전까지빈민구제의기반이되었다. 1832 년의개혁법에따라권력을원산업자본가와기업가계급은통제가능한인적자원풀을요구했다. 그들에게‘지역교구의빈민구제에근거한구체제는노동자들과잉보호하고, 납세자의소중한자원으로노동대중에게경쟁의바람을피할방도를제공하는것’이었다.

1831 년의구빈법개정안은그악명높은구빈원을중심으로, 더공공연히가혹한체제를만들었다. 하지만산업도시의급격한확대는공중보건의위험과범죄율의급증을가져왔고, 이는 1848 년의공중보건법, 1856 년의경찰법, 그리고보건, 교육, 고용부문에서그어느때보다활발한복지입법을불러왔다.

1890 년대에는이전의입법적조건, 노동자계급조직의압력과국가적퇴보에대한공포가결합하여다양한정부행동에대한요구로드러났다. 비스마르크는복지개혁을통해노동계급운동을자본주의체계안으로혼합할가능성을보여주었다. 하지만보어전쟁징집병들이보여준끔찍한위생상태와독일과미국과의경제적경쟁에서의패배가초래한세기말적인불확실성은부패한사회체계에대한개혁요구를촉발했다.

이와같은국가적개입에대한요구는 20 세기초의자유주의정부들이산재보상, 국가교육과급식, 노령연금, 아동노동제한, 건강보험과실업보험등사회복지의다양한측면을포괄하는법령들을통과시키게하였다. 이러한개혁확대를통해영국은 1911 년에이르러초기국가복지체계를갖추게되었다. 이러한체계를만든이유는불명확하다. 하지만이것이과거에이야기된바자선활동과는크게관계가없음은분명했다. 현대의연구는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

“내외부적압력이증가하는상황에서현존하는자본주의경제체계를최대한유지하고자하는열망이야말로자유주의개혁의근원적이고가장중요한동기였던것으로보인다.”

자본주의의성질변화에적응함에있어, 국가적개입의지속적이고양질적인증가에적응함에있어, 19 세기말과 20 세기초의정부들은중앙집

권에반대하고질서를거부한다여긴기구들에대한공격을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철폐되었고, 지역교육청으로대체되었다. 보다자유주의적이고인본주의적인체제를가지고있던지방자치는중앙정부로대체되었다. 2 차세계대전전까지자유주의적개혁은국가주도복지의핵심으로남아있었다. 2 차세계대전기에는, 공공생활의모든영역이국가의통제아래로들어갔다. 이처럼높은수위로진행된중앙의통제와전후노동당정부들의성립은복지국가가다음단계로진화하게끔하였다.

전후복지국가

우리가지금아는것과같은복지국가가좌파의비호아래성립한것은우연이아니다. 사회주의운동에는국가를지향하거나, 국가를거부하는두가지조류가있었다. 하지만이중권력을잡은것은페이비언협회와사민주의자들의국가주의였다. ‘사민주의개량주의자들과혁명적사회주의자들은시장의아나키를관료적합리성으로대체하고자했다.’사회주의는사회경영과연관되기시작했고, 자주경영을향한투쟁은지엽적인것이되어갔다. 사회주의적신념은국가적자원의합리적관리와이를위한산업의대규모국유화전술에관한것이되었고, 영국좌파의핵심적이념이되었으며, 강한중앙정부의정치적통제의필요성에관한믿음이되었다. 2 차세계대전중만해도노동운동의서로다른조류들은서로갈등하고있었지만, 1 차대전전기에존재하던조합주의등반국가조류는 1940 년대에그힘을소진했다. 1945 년에는, 노동자의주권의제는페이비언사회주의였다. 이것은과학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전문가들의승리를알리는신호였다. 전쟁중의기술적진보와비상시국에서강화된관료구조는그이전에는꿈도꾸지못했던단계의정도의사회통제가가능하게끔하였다. 케인즈주의적수요관리는경제를통제할수단을제공한것처럼보였고, 사회주의자들에게는그것이자본가들을저지하는수단으로보였다. 앤서니크로스랜드에따르면, 국가는더이상단순한자본가의집행위원회라볼수없으며, 이제는 (사회적) 국가로써스스로의방침을결정하고있다고말한다. 전후호황과개입주의적미국을등에업고사회자본주의의가능성은모두에게소비를지시하는복지시스템을위해수요를신장하는소비사회를제공해주었다. “복지국가는자본주의의재생의전제조건이었다. 복지국가안에서자본주의는새롭고유익한모습으로보일수있었다. 자본주의는더이상엄격한관리자가아니라모든좋은것의제공자로보였다..”

필요충족자로서국가의역할이증대하면서복지는모든것을망라하게되었다. 여전히복지는위로부터집행되는것이었고, 복지국가는엄격한하향식구조였다. 하지만심지어노동계급의주거구역이‘적절한생활을만들기위한전문가의아이디어’에따라철거당하는와중에도, 사회통제적

패하면) 해산했고, 공동체에주어지는서비스의구조를급진적으로바꾸려는시도를하지못했다. 그리고보다장기적인프로젝트사업은급진적사회비평에이르지못하였고, 이는다른프로젝트와연계하여진정으로국가권력을상쇄할세력을만들지못하게하였다. 두경우모두에있어각그룹들은단지변화의가능성을생각하는것이아니라, 그들이위치하고있는자유주의주의적전통에대해서도생각해야한다. 더욱광범위하고, 대단히중요한사회적, 정치적인제들은이작업을시작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몇몇캐나다활동가들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다양한시민의조직이사회에대한포괄적전망을가지고, 그들의특정한투쟁을이에연관시키는것은중요하다. 식량협동조합, 주거협동조합, 생태주의그룹등은새로운사회적연결망을구성하고, 이를통해새로운사회적근간을놓을수있다. 집단적행동을선택하기위한시민의자주성의증대는노동계급이그들의동네를, 그들의도시를장악하는것을공고히하는데필요불가결한것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은국가권력을무력화하기위한새로운활동태와이론의가능성을제시한다. 이러한활동은매우어려울것이다. 필요한자원을확보하는것도그럴것이고, 국가주도복지가점점더납세자의집으로보이기시작하면서, 복지수혜자들에게는장기적으로포기외의선택지가없을것이라는것에서더욱그러하다. 하지만이것은국가주의적선택지의한계속에서, 포기보다는나은대안임에는분명하다. 그리고이것은진정으로비국가주의적인복지공동체를, 정치꾼들과관료와전문가들에의존하지않는공동체의건설을시작하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다시금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국가가존속하여개인과지역의생활을분쇄하고, 모든인간의행동을장악하거나 ... 국가의파괴를통해개인과집단의생동적인주도권과자유로운합의의원칙에기반하여수천개의중심에서새로운삶을시작하거나. 선택은당신의것이다!”

결론

아나키스트들에게자본주의를극복하려는좌파의시도가실패한것이국가의성장으로이어졌다는것은역설적으로보인다. 자치와권한부여는더이상관료의팬대를통해서이루어지지않고, 시장의‘보이지않는손’에의해이루어진다. 복지가국가의손에있는이상, 복지는사회통제의다른형태로전용될수밖에없다. 그리고우리가시작하면서인용한크로포트킨의말처럼, 우리의복지를국가에넘겨주는것은우리안에내재한사회적역량을약화시키고우리가누구에게도의존하지않고원자적인개인이라는억지를부리는것이가능하게한다. 이는신화에불과하다. 복지국가에서, 부유한자가국가주도복지로부터가장수혜를받는다는것을고려할때

것은사실이다. 자본주의의대리인들이호선한합리성의도구들은과학과 기술의발전에있어분노의정도를증가시켜왔다. 과학의지속적인적용은 결과적으로더많은사람을죽이는최적의방식을만드려냈다. 그리고무엇 보다과학과기술을평범한사람들로부터분리시켜엘리트들의손에줘어 주는것은결국직간접적인통제와이윤의수단을줘어준것과같다.

이러함에도불구하고, 어떠한것, 특정한발견, 방법론, 노동의형태 의사용과집행을비판함에있어발견, 방법론등의그자체를비판할필요는 없다. 앞서말했듯이, 그구분선은언제나명확하지는않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발전은일반적으로윤리의문제를중점적으로고려하지는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과기술이이성의도구로써윤리적이고생태적인 맥락에놓였을때, 이것은인류가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최고의방식이된 다. 예방은치료보다낫기에, 만약우리가보다생태적으로조화로운방식 으로살게된다면, 우리가고통받는많은질병들은사라질것이다. 그리고 이것은궁극적으로공중보건이된다. 특정분야의전문가나기술수준이높 은사람에대한필요는계속존재할것이다. 이는이러한사람들을훈련하고 평가할기관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학습의해방이라는것이 학술기관이나전문가양성소의폐지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이기관들은 비계급적이고비권위적인방식으로재구성하는것이다. 그렇기에이기관 들은(길드나생디칼에입각하여조직되고) 전문가들의지도나, 관료기 구를필요로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경향성을상쇄하는구조들이있을것 이기때문이다. 물론사실이러한전문가들에대한필요가그렇게많지는않 을것이다. 하지만아나키즘의목적은국가와자본주의에대한현실적인대 안을제시하는것이고, 인민은한순간에파괴불가능하고, 완전히균형잡 히고, 완전히합리적이되지않으니까말이다.

여기에서저기까지

우리가조직대안적관계를건설하는것으로만국가를붕괴시킬수있다 는개념은복지의주도권문제에중요한시사점을준다. 이것이상호부조와 협동의원칙에근거해만연한계급체계에도전할수있는수단이기때문이다. 이에근거하여래디컬페미니스트들은전통적으로분리주의적이고여 성에게만주어지는복지를주장하는것이‘복지의제공자와수혜자의관계 를비계급체제적이고민주적인복지구조안에서새롭게구성하여다시금 구식이고계급적인복지기구에도전하기위함’이라고말한다. 과거에, 앞 서간략히언급한실험과프로젝트들은정치적전망의부족으로약화되어 왔다. 이그룹들이특정한문제를직면하여모일때(일반적으로공동체운 동의경우에그러했는데) 그주된기능은이미구성된권위로부터무언가를 얻어내기위한것이였다. 결과적으로이들은그목적을달성하면(혹은실

요소들은다소불명확해졌다. 국가는모두를위해무언가를제공할수있었 다. 이에대한대가는총체적행정사회의비자유였다. 하지만, 마르크제가 지적한것처럼‘정신과지식은필요의충족에반하는요구를이야기하지않 는다.’

전후호황이끝났을때, 복지국가의낭비에대한문제가공개적으로질 의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국가에대한요구의증가는국가를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만드는것처럼보였다. 그이유는역설적으로요구충족이라는 동일한이유에기인했다. 하지만복지국가가위기에놓였을때, 1970 년대 에노동당이사회민주주의를구원하기위해기구화해둔위기관리기제가 작용했다. 그리고보수당정권은복지국가를철폐하는것이아니라요구충 족에대한요구를특정한, 사회적으로더가치있는구성원들에게제한하려 했다.

결과적으로사회복지의모든측면에서사회통제의요소들이더명확히 드러나게되었다. 공적지출삭감의시도가실패하는와중, 국가는점점더 많은부를사회의더부유한영역에집어넣고있었다.(그러면서사회의빈곤 한영역은도덕적십자군들을이용해공격하고있었다.) 이는복지기금을 편모가정에부하를늘리고, 남성을다시금경제적생산자로돌려놓으려는 시도에서굉장히명확하게드러났다. 복지국의제공자(납세자)들과복지 의수혜자들을분할하는체계는부가집중되던될수록더욱명확해졌다. 중 산계급은공고해졌고, 복지체계는경제적으로지속불가능해보였다.

사회통제의요소가점점더명확해진것만큼이나, 복지국가라는개념 이그창조자들의꿈을충족하는것이실패로돌아간것도더명확해졌다. 국가가복지의제공자로존재하는것의효과에대한문제를더논해보도록하 자.

복지국가의효과

영국에서의복지국가개념은전후사회민주적합의의최대성과이자 1930 년대라불리우는벌거벗은자본주의의야만성으로부터의탈피라불 리운다. 복지국가에대한승배는너무나도광장해서, 정확히얼마나복지 국가가효과적인가? 복지국가가평등을촉진하는가? 복지국가가정말로 부의분배에영향을주고있는가? 같은질문을던지는것마저어렵다. 그리 고지난 20 여년간이영역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음에도, 이질문에대한 명확한답을찾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질문에답하는것을어렵게하는것중하나, 선호를선호와비교하 지않는것이다. 전술한것처럼, 전후세계는많은지점에서전쟁전의세계 와달랐다. 자본주의는소비주의로재구성되었다. 산업은국유화되었다. 정부가경제에개입하기시작했다. 국가관료제가성장했다. 기술, 직업적

엘리트가 만들어져서 고수익과 높은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 경제의 영역에서, 부의 총량이 증가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복지 국가의 등장 이 그 분배에 기여했는가는 불명확하다. 예를 들자면, 1924 년 3/4 분기에서 1951 년 2/4 분기까지 하위 80% 의 대중은 그들의 부를 2.5 배 증대시켰지만, 이것이 복지 국가의 재분배적 효과에 근거한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후 20 년간 이 지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시기는 전후 복지 국가가 부의 분배에 진지하게 도전하였다 여겨지는 시기인데 말이다. 르그랑은 1980 년 영국에서 하위 50% 의 인구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1949 년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설혹 빈자의 삶의 질이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파이가 커져서이지, 파이의 분배가 개선되어서 아니라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인민들은 자신의 계급 체계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로이스브라이슨은 이에 대하여 “이는 마치 인민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국가 주도 복지 가 일말의 재분배 효과를 가졌다면, 이것은 부자에게서 빈자로 재분배된 것이 아니다.

가장 부유한 인구에서 조금 덜 부유한 인구로 부의 재분배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일지 몰라도, 빈곤한 인구는 상대적으로 그 재분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부의 재분배의 요체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 부터 조금 부유한 사람으로의 재분배였다.

1984 년까지, 상위 10% 가 시장의 부 중 53% 를 소유하고, 하위 50% 가 6% 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15 년간,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입지는 점점 악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파가 주장하는 바 ‘낙수 효과’가 모든 이를 더 낮게 만들 것이라는 이론에 대한 반례는 충분하게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단지 국가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무주택 가정의 수가 93,000 가정으로 늘어나고, 기초 생계 보장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300 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지만, 더 충격적인 통계는, 1979 년의 보수당 집권 전, 30 년의 국가 주도 복지 의 시기에도 여전히 56,750 가정의 무주택자가, 2,090,000 명의 기초 생계 수급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로이스브라이슨의 책 < 복지 와 국가: 누가 수혜를 받는가? > 는 국가 주도 복지 의 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의 개괄을 담고 있다.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랄라시아 등의 복지 에 대한 연구를 조망하면서, 국가 주도 복지 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건강 보험 과 ‘구수혜가 소득에 가장 체계적으로 상관되는 공공성’이라 불리는 교육 등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그리고 건강 보험의 경우, 영국에서 빈자가 부자보다 보건의 문제에 있어 더 고통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존재한

사회 복지 와 아나키스트 적 대안

국가의 존재가 사회 와 공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 가 없는 사회 가 그 구성원 들에게 충분한 복지 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겠냐는 질문 이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다. 국가 체가 필요 하다고 보 이는 몇 가지 문제 들이 분명히 존재 하고, 그것은 아래와 같다.

복지 문제 의 규모

광범위한 협력 의 필요성

전문성 의 필요성

하지만 이 영역 들 역시 아나키스트 적 대안 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복지 의 문제가 거대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현재 경제 체제 의 결과물 이다. 그리고 국가 복지 역시, 이 경제 체계 가 존재 하는 한 문제를 완화 할 수 없다. 이미 명시 한 것처럼 계급 으로 분화 한 사회 에서 나타나는 복지 의 불평등 을, 자본 주의 가 환경 에 행 하는 잠재 적으로 끔찍한 효과 들을 보면 이것이 사실 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더 하여 만약 국가 주도 복지 가 대부분의 경우 사회 통제 와 동치 된다면, 그리고 만약 사회 통제 가 참된 복지 의 안티테제 라면, 대규모 의 국가 적 복지 가 매혹 적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장기 적으로 는 반생산 적 이라 여겨져야 한다. 인민 의 복지 에 대한 존도를 높이고, 그들이 복지 를, 타인 의 지시 를 받아 들이게 해서 는 안 된다. 복지 에 관한 많은 문제 들은 국가 적 층위 에서 는 해결 될 수 없고, 개인 이나 공동체 의 층위 에서 만 해결 될 수 있다. 인간 복지 필요 의 거대한 규모 는, 그를 쪼개어 보면 작은 필요 의 총합 인 것이고, 지역 층위 에서 해결 하는 것이 더 낫다.

아나키스트 들은 조직 이나 협력 에 반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코뮌 의 연방 과 같은 대안 을 제시 한다. 이코뮌 들은 인간 이 그 조건 에 대한 최대 의 통제 를 가능 하게 하고, 그 연방 을 통해 광범위 한 영역 의 문제 와 대응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 부조적 공동체 가 그 요체 로써 최소 의 기초 적 생활 을 제공 하기 위한 기능 을 한다고 상정 할 때, 복지 제공 의 최소 기준 은 크게 문제 가 되지 않는다. 특히 공동체 의 모든 구성원 들이 그 생산 물 에 동등 한 권리를 가진 다면 말이다. 자원 의 다름 이 여전히 존재 하겠지만, 이것은 연방 적 협력 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전문 성과 기술 은 자본 주의 와 국가 가 제공 한 틀 바깥 을 상상 하기 어려운 영역 이다. 그리고 이 영역 에 대한 회의 를 표 하는 것은 많은 사람 들에게 아나키스트 들이 과거 회귀 적 태도 를 취 하고 있다고 보이게 한다. 하지만 아니다. 아나키즘 은 자주 산업 시대 이전 의 ‘황금기’ 로의 회귀 를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 을 하는 아나키스트 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 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판 은 옳바르지 않다. 아나키스트 들이 그들이 제시 하는 대안 의 가능성 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더 ‘아나키스트 적’인 조직 의 방식 이 결코 ‘인간 의 본성’ 에 반 하는 것이 아니 고, 오히려 대부분의 문화 에서 특정 시기에 번성 했음을 제시 하기 위해 역사를 돌아 보는

계, 제도적폭력에기반한하향식조직의전형이기에국가에특정한공격을가한다. 그리고우리는국가가아나키스트들이공격해온권력관계와지배의체계의존재를지시하기에국가를공격한다. 아나키스트들의궁극적인목적은모든권력관계가철폐된사회, 혹은‘아나키’를건설하는것이기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를무언가특별한것으로바라보지않고, 오히려권력관계의체계가현현한것이라바라본다. 그렇기에아나키스트들은국가를무너트리는유일한길은다른관계를건설하는것이라바라본다. 역으로말하면, 국가가존재하는한‘자유로운’사회는있을수없다. 국가의존재자체가다른사회적권력관계들의존재를정당화하기때문이다. 그렇기에아나키스트들에게있어참여와탈중앙화의의상은, 그것이얼마나유의미하거나중요한지와는무관하게, 그자체만으로는불충분하다. 단지, 그것은국가의대안을묘사하는데핵심적인요소들일뿐이다.

사회를어떻게정의하더라도, 사회적계급체제에서특권을가진자들뿐아니라, 그모든구성원을보살피고행복한삶을이룰역량은그정의에서빠져서는안된다. 그렇기에복지는단지사회적부가가능이아닌사회의본질적인부분이되어야한다. 이는사회가그무엇보다도복지를제공하기위해조직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아나키즘은공동체구성원에대한일상적복지의제공을다시공동체에돌려주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로써복지는단지체제나체제안의노동자들의해제공되는기능이아니라, 공동체와인민들의일상의일부가될것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복지는개인들이스스로를발전시키는방식이될것이다. 복지는학습의과정이자성장의과정이다. 이과정을통해우리는고령자, 연소자, 아픈자, 죽어가는자를젊고역량있는사람들의시아에서치워내는것이아니라, 사회안에포괄하는방법을학습할수있을것이다. 이과정을통해우리는전문가와기구에기대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의복지적필요에대한인식을심화시키고, 그것을충족하는방법을알아낼수있다. 사회복지에있어직접행동은미래의자유롭고생태적인사회를건설하는데핵심적요소다. 그리고이러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모든운동의핵심적교리가된다.

[직접행동]은각각의개인이스스로에내재된숨겨진힘을깨워내고, 자신감과자기주도권을느낄수있게하는방법이다. 이것은개인이사회의통제력을직접적으로확보하는수단이다. 직접행동은, 간단히말하자면, ‘효과성’이나‘대중성’과같은잣대로수인되거나거부될수있는‘전술’이아니다. 직접행동은도덕적원칙이고, 이상이며, 감수성이다. 직접행동은우리삶과행동과전망의모든영역을충만하게할것이다.

국가주의는이러한관점을약화시키고자지배와복종의체계를위한물질적, 심리적조건을만들어낸다. 그리고이것이야말로국가의존재가복지사회와공존이불가능한이유가된다.

다. 성과연령을막론하고, 계급간의사망률이크게차이가난다. 비숙련육체노동자들의아이들은태어나서생후 1 개월까지의기간동안, 전문직의아이들보다두배의영아사망률을가진다.

건강보험에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가장상위에있는그룹이하위그룹보다 10% 더많은국민건강보험수혜를받고있다. 이불평등은주거의영역에서도드러난다. 공공주거는더가난한사람들에게주거보조를제공해주었지만, 세금을통해효과적으로부유한주택소유자들에게편향된체제를유지한다.

르그랑은이와같은불균형이다음에근거한다고말한다.

부유층은사회서비스를이용할시간이많다.

부유층은이러한서비스들을전용할능력이있다.(특히교육의영역에서)

부유층은주어진사회서비스를이용할가능성이높고, 예산삭감에직면하더라도그것을유지할수있다.

마지막부분은지난 15 년여간정부가진행한국가주도복지에대한공격을생각하면더욱의미심장하다. 빈자들은복지국가에서상대적으로조금밖에받지못했고, 퇴보의시기에그들은그나마받고있는것이라도지키기위해투쟁해야했다. 브라이슨은사회학적으로, < 마태오가전한복음서 > 에서따온바, 마태오의원칙이라이를명명한다. ‘가진사람은더받아 넉넉하게되겠지만못가진사람은그가진것마저빼앗길것이다.’

브라이슨은서비스제공뿐아니라재정적지원이나직업적보조에대해서도이야기한다. 브라이슨은각기다른방식에따른실질적효과는국가와시대에따라다를수있을것이라언급하면서도, ‘세금체계의복잡함을파고들면, 재정적복지, 직업적복지, 사회적복지모두가마태오의원칙에부합함을알수있다. 필연적으로이모든형태의복지체제는현재의사회적계급체계를강화한다.’고말한다. 그렇기에복지국가가사회정의와부의재분배에긍정적으로기여했다고주장하는것에는의문이가해진다. 복지의문제해결하는것이국가개입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는광범위한견해에는사실상근거가없다. 오히려국가는현존하는계급체계를유지하고, 가난한이들을사다리의아래에두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다. 이것은우리에게사회복지를재건하기위한진정한시도는국가의바깥에서구성되어야한다는, 국가주도사회복지의대안으로향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복지와아나키

국가에대한반대 - 우파? 좌파?

지금까지나는국가주도복지의요체는사회통제임을, 그리고국가복지는그것이약속한바, 평등과부의재분배를신장하지못함을이야기해왔다. 만약우리가국가주도복지가망령임을인정한다면, 그대안은무엇인가? 우파, 혹은‘자유시장주의자’들은흔히국가가시장기능을자유롭게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자유시장주의자들이아나키즘적자본주의자들은국가를철폐해야한다고주장한다.) 부를가진자에게는모든것이허용되어야하고, 이에대한정부의개입이 (혹은정부자체가) 없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태가어떠한형태로라도복지를유지하는데충분한수단을제공하지못할것이라는추정은충분히근거가있는것이다. 복지는가격에의한분배를지향하는현존시장체계를악화시킬것이기때문이다. 이에더하여제약되지않은이윤추구는아마도생태적으로올바른사회적, 경제적체제를만들지못할것이며, 현재의환경파괴의수준은여전할것이고, 심지어더심해질수도있다.

또다른대안은수혜자참여와노동자민주주의의증대를통해복지에있어국가의이득을최소화하는것이다. 다르게말하면, 국가로부터통제력을되찾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은사회복지문제의해결책이더많은재원에서온다는것에회의적인이들에게매혹적으로다가온다. 페미니스트들이나, 생태주의자들이나, 국가를지지하지않는좌파들은복지의우선고려사항을비용과중앙계획이아니라참여로돌리는것이그제공을크게증진시킬것이라고제안해왔다.

참여는실질적이고잠재적인복지체계의사용자들과다른시민들이복지의발전과조직, 운영에개입하는것이다. 이것은복지의탈중심화지역화라는필연적귀결을낳는다. 현실적으로, 복지에의참여는지역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지역보건소에서, 지역학교에서, 지역부동산에서, 지역사회서비스사무소에서, 아니면오래된방식으로, 민중의집에서말이다.

유사한맥락에서, 복지분배의중산계급편향에대한최초의비평가중한명인브라이언아벨-스미스는아래와같이제안한다.

“우리는병원을현대적방식으로새로지을수있을것이다. 골목마다침상몇개를가진외래진료소나보건소를짓는방식으로말이다. 우리는정신적걸핍을초래하는공동주택을철거하고작은방을가진새로운빌라를지을수있다. 우리는고령자를위한기관들을철거하고그들에게적당한집을제공할수있다. 우리는장애를가지거나, 나이가들거나, 아픈이들을위한재택근무를제공할수있다.”

그리고이것이복지를사회통제의구속복으로부터해방하여그수혜자들의손에줘주는첫단계가될것이다. 참여를위한전술은이미오래전부터존재해왔다. 자본주의아래에서, 그자원을국가에의존하여기능해야한다는것때문에활성화되지못했을뿐이다. 하지만식량배분, 주거, 생산, 서비스제공이협동을통해가능하다는수많은예시들이있다. 자체건설주거는항상있어왔다. 신탁과지역사업체는항상있어왔다. 지역자치위원회도, 임차인운동도항상있어왔다. 자기조력그룹도, 각병원별로이루어지는보건복지의참여실천도항상있어왔으며, 자유의지주의적교육에대한실험과, 여성의쉼터나여성전용보건소도있어왔다. 이러한공식적실험들에더하여, 현실적으로대부분의돌봄노동은국가바깥에서, 주로여성에의하여, 무급이거나저임금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공식적이고비공식적인복지약정에의해생성된환경은그자체로유익하다. 그것은제공하는값비싸고질나쁜관계가아니다. 이는특히보건분야에있어적용될수있다. 고령자, 정신질환자, 말기환자들은수용시설에치워져‘전문가’의의견에의존하는것보다공동체나가족함께할때더행복할수있다. 또한돌봄받는사람에게정확하게그이득이간다는것외에도, 기관의해체는그곳에서일하는돌봄도봉자들에게도움이된다. 콜린워드네“기관의직원들은그수용자들과마찬가지로피해자이다”라고말한바있다.

이참여적이고탈중앙적인접근이야말로지난백여년간국가의힘이커지는것을비판해온아나키스트들에게와닿는것이다. 하지만이접근이아나키스트들이선호할만한것이고, 현재의중앙집중적이고전문가편향적인체계보다더발전된체계이지만, 많은논객들. 심지어탈중앙화의지지자들마저도여전히선호하는국가의지속적이득에대해회의적이여야할이유는분명히있다.

국가를고발한다.

우선제기하고싶은것은, 국가는정적이지않다는것이다. 국가의현재위치는지역의자주성을흡수하고, 엘리트집단의입지를강화하면서언어진것이다. 이러한파괴적역동성을벗어나서존재하는국가는없다. 1970년대의스웨덴을희망하는복지국가의수호자들조차도‘행정적효율’을위해지방정부의역할을잘라낼수밖에없었고, 이는지방자치에직접참여할가능성의축소를수반하였다는것을인정할수밖에없다. 그리고이는그들이대변하는세력으로부터권위를부여받아높은지위와수익과계층적지위를즐기는엘리트들의성장을촉발한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들은국가의본질에대해비판하는것만큼이나국가가대변하는것에대해서도비판한다. 우리는국가가권력관계, 계급체